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일본군 추격대 1개 대대를 섬멸한 독립전쟁 최초의 대승으로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청산리 전투는 총재 서일, 총사령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계곡에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10여 회 전투 끝에 일본군 3,300명을 물리친 전투였다.

독립군은 이 두 전투에서 일본군보다 앞선 정보력으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신홍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이 전투에 대거 참여하여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산리대첩은 독립군이 일본군의 간도 출병 후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이 전투에 참가한 주력부대의 하나인 북로군정서군의 병력은 그 해에 사관연성소를 졸업한 298명을 포함해 약 1,600명이었고, 무기는 소총 1,300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을 갖추고 있었다.

전투에 참가한 간부는 **총사령관 김좌진**, 참모부장 나중소, 부관 박영희(朴寧熙), 연성대장 이범석, 종군장교 이민화(李敏華)·김훈(金勳)·백종렬(白鍾烈)·한건원(韓建源), 대대장서리 제2중대장 홍충희(洪忠憲), 제1중대장서리 강화린(姜華麟), 제3중대장 김찬수(金燦洙), 제4중대장 오상세(吳祥世), 대대부관 김옥현(金玉玄) 등이었다.

또 하나의 주력부대인 홍범도부대는 대한독립군·국민회군·의군부·한민회(韓民會)·광복단·의민단·신민단 등이 홍범도의 지휘 아래에 연합한 부대였으며, 그 병력은 약 1,400명이나 되었다.

유명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

의병전쟁 및 항일독립전쟁기의 대표적 장군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민족주의와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무장투쟁노선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1891년경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 2년간 상좌로 있으면서 지담(止潭)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승군(僧軍)의 활동 등에 대해 들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1907년 의병을 모집 투쟁하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1920년 청산리에서 일본군 37여단 1만 5,000여 명을 맞아 싸워 3,000여 명을 살상시키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옮겨져 연금으로 생활했다. 1943년 10월 크슬오르다에서 죽었다



김좌진 장군

만주 무장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자는 명여, 호는 백야이며 부유한 명문가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으며, 2년 뒤 고향으로 돌아와 호명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만주로 건너가 무장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사관양성과 무기입수에 힘썼고, 일본군을 상대로 10여 차례 지속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좌우합작 민족유일당을 조직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